



부처님의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 복아원.

인도의 불교 성지가 한국 전통 수묵화의 기법으로 한지 위에 다시 태어난다.

현재 현대불교에 연재중인 '인도 그림기행'의 작가 이호신 화백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뉴델리 '칼리트 칼라 아카데미'에서 인도기행전을 연다. 전시의 주제는 '인도의 인연'.

이 화백은 성지순례가 목적이었지만 부처님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인도의 모습에 반해 붓을 집어 들었다. 기행을 하며 화첩에 개괄적인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

엘로라 석굴·보드가야 대탑등 20여점

조로 한국에 돌아와 대형 한지에 다시 세밀하게 옮겼다.

이번 전시에는 이 화백이 처음 도착한 도시인 뭄바이에서부터 바라나시, 갠지스강, 타즈마할,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보드가야 대탑과 초기 불교유산인 산치대탑, 사르나트 녹야원을 거쳐 히말라야의 포카라 호수까지 20여점이 선보인다. 이중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은 5m가 넘는 대작으로 인류 문화의 거대한

이호신 화백의 인도기행전

12월 5~11일 뉴델리서

인도 불교성지를 전통 수묵화폭에

검은색의 수묵을 보면 영락없는 동양화지만, 간간히 울긋불긋 강렬하게 묻어 있는 채색기법을 보면 서양화이기 때문이다.

김화량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는 "이 화백의 작품에는 인도의 문화유산이며 세속종물, 사람들, 자연경관 등이 나오지만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구경거리로만 비춰지는 않는다"며 "거칠다고 해야 할만큼 주저하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는 붓질이 지닌 품성과 더불어 인도를 한갓 그림의 대상으로 종이에 옮겨 놓았어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지난 2000년 11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박물관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역사와 삶'을 수묵채색으로 그려 호평 받기도 했던 이 화백은 "이번 전시에는 수묵화의 기법과 소재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지와 수묵이 갖는 독특한 화화재료가 제한된 소재를 뛰어넘어 서구미술에서 맛보지 못하는 차별화된 미감을 표현하려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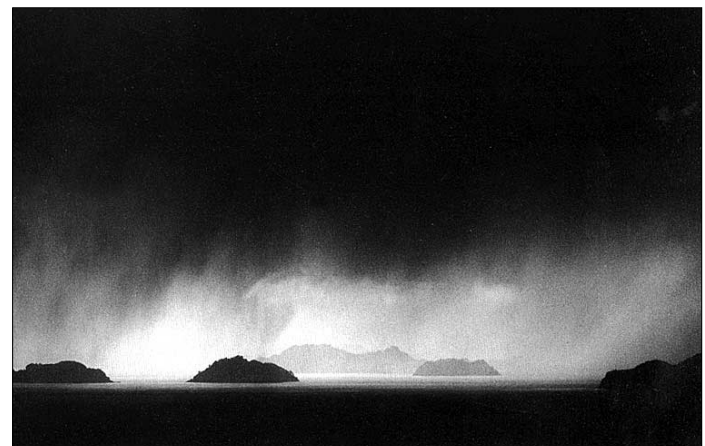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문화소식

바다주제 사진전

△윤영숙 사진전=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룩스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바다'. 실루엣 같은 색채바다.

폭풍이 몰아쳐 오는 격렬한 바다. 일몰 무렵의 바다 등 다양하고도 절절한 바다 모습을 영감에 담았다. 윤씨는 93년 불교잡지 <불광>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 오랫동안 연꽃 사진을 찍어왔다. (02)720-8488



윤영숙 작, '바다'

라다크인의 삶 렌즈에

△라다크 사진전=겨울이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악조건을 공동체 생활로 이겨내며 오히려 후덕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라다크인들의 삶을 사진작가 김광부씨가 카메라에 담았다. 2x4m 대작을 포함해 20여점의 사진들이 걸린다.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빔 갤러리. (02)723-8574

수상곡 국악편성 연주

△창작 찬불가 음악제=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1월 28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 4회 창

작 찬불가 음악제'를 개최한다. 1회부터 3회까지 창작찬불가 대회 대상 수상곡을 국악으로 편성해 연주한다. '풍년제', '향(香)', '보현행원', '보리심', '천왕사', '정심' 등을 들려준다. (02)739-1830

한미음선원 음성공양

△선법가 합창단 연주회=한미음선원 선법가 거사 합창단은 11월 29일 저녁 7시 안양 한미음선원 2층 법당에서 연주회 및 송년회 밤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는 '내마음의 주인', '선법가'를 비롯해 대중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으로' 등 10여곡의 음성공양을 한다. (031)470-3100 김주일 기자

78세 할머니의 극락으로 시집가기

연극 '오구'를 영화화...28일 개봉

1989년 초연된 이래 연극 관객 270만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오구'가 영화로 돌아왔다. 11월 28일 개봉 예정인 '오구'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로 녹아있는 불교와 토속신앙이 건강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는 경상남도 밀양의 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이 마을에 사는 78세의 황씨 할매가 어느 날 죽은 남편이 소를 타고 데리러 오는 꿈을 꾸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이승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산오구'를 하겠다는 것. 할머니를 극락으로 시집보내기 위한 영동한 의도로 인해 일부 마을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대 소동에 휩싸이지만 결국 극락은 벌어진다.

'산오구'의 줄임말인 '오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의 모티브는 신령나는 곳판이다.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황씨 할매의



영화 '오구'에서 벌어지는 곳판은 화해와 소통의 장이다.

염불소리와 '극락', '나무일심보경' 등의 불교용어는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한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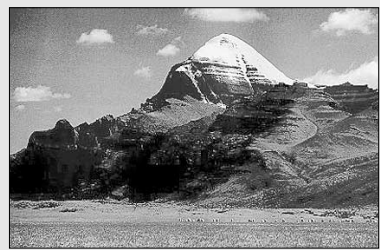
MBC-TV 창사특집 다큐

'티베트 대탐사' 12월초 방송

MBC에서는 12월 6·7일 일간길 티베트인들의 삶과 불교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티베트 대탐사(사연출 임재우)'를 방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1부 창당, 정복되지 않은 대지(6일 밤 11:15)', '2부 신들의 땅 카일라스(7일 밤 11:30)' 등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전설의 구개 왕국이 있는 서부 창랑고원을 중심으로 티베트의 자연과 유목민의 모습을 담았다. 2부에서는 4대 종교의 최고 성지인 성산(聖山) 카일라스의 모습과 함께 불교 축제, 오체투지 순례자 등 티베트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티베트의 성산 카일라스.



영화 곳곳에 불교내용 물씬

주인공 황씨할매역 강부자씨

1997년 연극 '오구'를 시작으로 이번 영화에서까지 주인공 '황씨 할매'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는 불자탤런트 강부자 씨(62·사진)를 지난 11월 13일 기자시사회장에서 만났다.

▲연극에 이어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소감은? 연기생활 40여 년 동안 내 이를 써자를 내 걸 수 있는 대표작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좋은 분들과 작업한 영화가 탄생하게 돼 행복하고 흥분된다.

▲연극과 영화 작업 모두를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오구'의 끝 부분에는 황씨 할매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다. 연극공연 때 관객 중 한분이 실제로 무대로 올라와 황씨 할매가 아닌 강부자의 장수를 빌어주는 것처럼 절하고 합장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강부자' 하면 불자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 영화에서도 불교적 캐릭터가 강한가?

- '오구'는 꼭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황씨 할매가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등을 염불하는 장면 등 불교적인 색채가 영화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 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포)

●주문방법: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에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055) 384-2303 大邱支部: (053) 641-2334
龜尾支部: (054) 465-2642 慶南支部: 016-274-3170
慶北支部: (054) 553-5145

당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원칙 의과학과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의 신생약 습근에 맞춘 발란스 사용입니다.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50,000원
2개월분 270,000원

개발자(김동진 교수) 약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용인(화곡)수
-영남대학교 기림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보건·약학·산도연구센터 센터장
연계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한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그리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남대학교 당치발란스연구소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법복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면 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숨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속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가야질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면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속의화학 권재우 동(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